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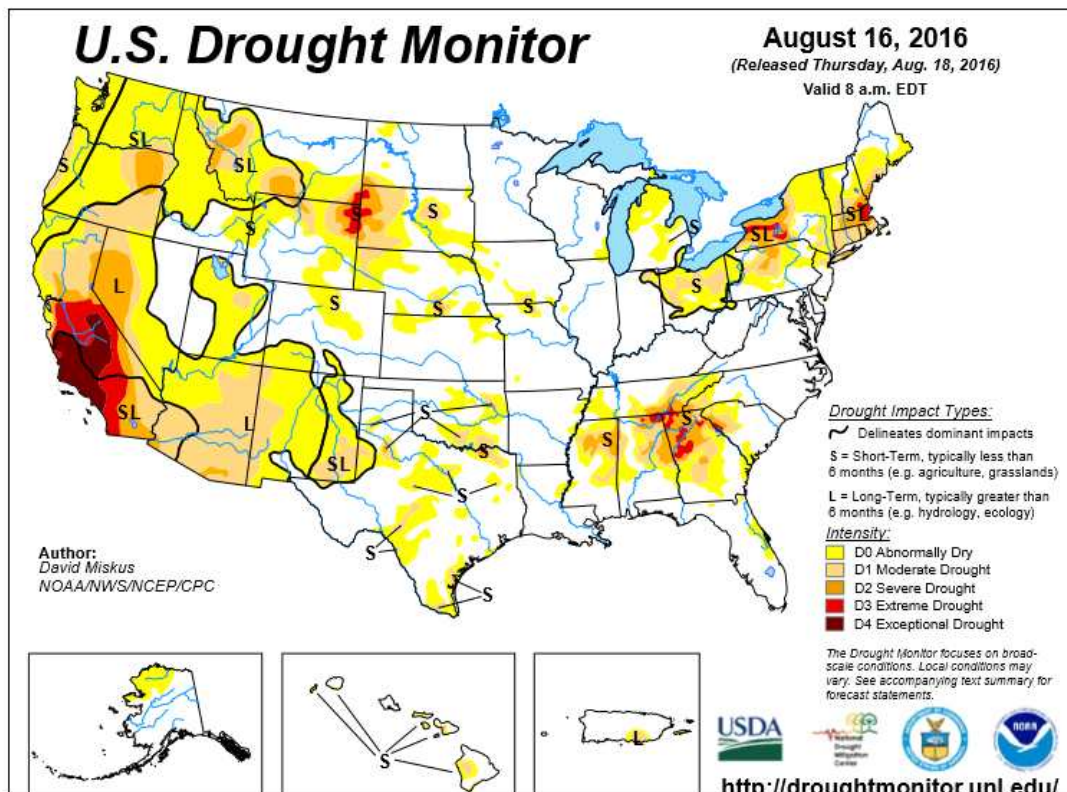
8월 2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34)

□ 미국 기후 현황(8/14~8/20)

서부에서는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로키산맥 동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였다. 지난 주 루이지애나 남부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북부로 옮겨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강이 범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걸프 연안 서부지역에서 오하이오 일대에서는 2~5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고,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북동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뭄이 생겼던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가뭄이 해소되었고, 더위도 물러갔다. 중부 일대에서도 비가 내렸는데, 비로 인해 밀 수확 등의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북서부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 덕분에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Lytle Creek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37,000에이커에 해당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105채의 집과 200여 채의 건물 피해도 발생했다. 워싱턴, 오레곤 및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10°F 이상 기온이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다.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August 23



□ 농업 현황 요약(8/15~8/21)

중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은 날이 이어졌다. 와이오밍,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칸사스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정도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이상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다. 남부 대평원에서부터 오대호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농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텍사스, 인디애나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6인치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렸다.

■ 옥수수

8월 21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85%에 이르는 지역이 dough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p 앞서는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9%p 앞선 수치이다. 한편, 21일 기준 denting이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6%p 앞서는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5% 앞서는 수치이다. 응답자의 75%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 1%p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6%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지난 8월 21일 기준, 꼬투리가 형성된 지역의 비율은 89%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4%p 높은 수치다. 응답자의 72%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p 높은 수준이며, 지난 1992년 같은 기간에 보였던 수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 면화

8월 21일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92%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2%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3%p 앞서는 수치이다. 16%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면화송이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높은 수치이다. 전체 응답자의 46%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6%p 낮은 수준이다.

■ 쌀

8월 21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97%가 출수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7%p 앞선 수치이다. 전국 수확률은 15%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p 느리지만, 직전 5년 평균보다는 약간 앞서는 수치이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 4%p 낮은 수치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5%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8/14~8/20)

■ 유럽: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부와 서부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작물의 수확작업도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남서부의 경우 지난 6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같은 기간 평균 강우량의 50%에 그치는 등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수확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2~25mm 내외의 비가 내려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겨울작물 파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르비아, 루마니아 서부 및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주 초반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폴란드 남서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이 이어졌다. 이탈리아에서는 3~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다뉴브 강 일대에서는 1~15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에서는 지난 6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 수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중부와 북부, 러시아 서부 및 남부에서는 10~1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도 4~15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지난 9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지역에 따라 25~60% 내외에 그치는 등 가뭄의 지속되고 있어 수확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날씨가 맑아져 여름작물의 수확작업 등이 재개되었다. Volga 남부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41°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와 더불어 일시적인 가뭄도 찾아와 수확 전망이 다소 어두워졌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의 주요 옥수수, 대두 재배지에서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Heilongjiang, Liaoning 등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Heilongjiang에서는 지난 7월 1일 이후 내린 비의 양이 50mm에 그치는 등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Hebei, Shandong, Jiangsu 북부 등 북동부의 남부 지역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토양 수분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밖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25mm 미만의 비가 내렸지만, 가뭄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5개의 태풍이 찾아와 많은 비를 뿌렸다.

■ 호주: 서부와 남동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남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 덕분에 농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퀸즐랜드 남부 및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개화기가 시작되었다.

■ 아르헨티나: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3주 가까이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으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평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북부와 중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까지 오르고 있으며, 중부 밀 재배지 일부 지역에서는 밤 기온이 0°C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8월 18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86%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밀의 파종율은 9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의 주요 밀 재배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 Parana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Sao Paulo에서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Parana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Parana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밀 재배지의 70%에서 개화기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해소되었다. Sao Paulo의 커피 재배지 및 Minas Gerais 등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